

“창조경제를 리드할 환경기업과 함께하는”

# 국제환경산업기술 36<sup>th</sup> 그린에너지전

The 36<sup>th</sup> International Exhibition  
on Environmental Technology & Green Energy

ENVEX2014  
6월 10일 코엑스 개막!

- 국내 최대 규모 환경비즈니스 및 마케팅의 장인 「제3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4)」이 서울 코엑스에서 6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780부스 규모로 개최
- 환경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를 비롯해 세미나, 청년취업박람회, 환경법률 무료상담센터 등 약 6,500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행사 동시 개최
- 중국,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등 해외바이어 초청 및 비즈니스매칭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화 기대



# ENVEX2014

환경보전협회(회장 박용만)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환경비즈니스 및 마케팅 장인 『제3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4)』을 6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A, B홀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유망전시회로 10년 연속 선정된 ENVEX2014에는 국내 굴지의 환경산업체 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 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 20여개국 310여업체가 참여해 총 2천여종에 달하는 환경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전시회에서도 총 23개국 310업체(780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약 56,230여 명이 참관했으며, 상담액 5,622억원, 계약(추진)액이 2,211억원을 기록했을만큼 큰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등 43개국 1,414명의 해외바이어가 전시회에 참가하여 국내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매칭 등 활발한 수출 상담이 진행되었다.



동 기간에는 전시회 이외에도 약 6,500여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동시 개최될 예정으로, 환경부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정책소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미래유망 환경산업·기술세미나』, 참가기업들의 신기술을 발표하는 『국제 환경산업기술세미나』, 『수자원환경기술포럼』, 『한-중국이홍시 교류좌담회』 등 약 10여건의 세미나가 개최된다. 또한 온실가스 전문인력 취업활성화를 위한 『2014 그리에이티브 청년 취업박람회』와 환경법률 무료상담센터도 운영 예정이다.

ENVEX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바이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중국,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42개국, 1,500명 이상의 해외바이어 초청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ENVEX 참여기업이 실제로 해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리얼바이어를 선정, 항공권 및 숙박권을 지원하는 등의 “선택적 맞춤형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초청된 해외 유망 바이어들은 ENVEX 동안에 다양한 비즈니스 매칭 행사(리셉션, 전시장투어, 산업시찰, 세미나, 포럼 등)를 진행할 예정으로, 기업 환경이 열악한 국내 중소환경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환경보전협회는 ENVEX이외에도 국내 중소환경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유망환경전시회에 한국관으로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수처리환경전(WEFTEC/10월), 말레이시아 환경전(IGEM/10월), 프랑스국제환경박람회(POLLUTECH/12월)에 참가예정으로 참가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환경산업 수출증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사전관람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전시회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envex.or.kr>)를 참고 하시거나 환경보전협회 국제협력·전시사업부(☎02-3407-1540 ~ 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